

대통령실·국힘 ‘이상민 파면’ 일촉...“국조 깨자는 것이냐”

“오늘까지 수용안되면 국회 나설 것”
 민주 최후통첩에 강력반발
 해임건의 현실화엔 속내 복잡
 적절한 시점 사퇴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국힘은 ‘국정조사 판’을 깨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오도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로 해석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이 장관 파면 요구와 해임건의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일찍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열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 범위를 윤 대통령에게 확장하려 서두른다는 인식이다.

국정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특별검사(특검) 도입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파트너로서 도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일련의 정치적 공세 선포 세트를 하나씩 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 부응해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전격 파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야당발(發) 해임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광경

론이 분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도 없이 될 해임건이나”라며 “이 장관을 해임하면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물러나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이나 국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다만, 해임건의안 발의와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실도 단번에 거부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때와, 150명 이상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는 여론 지형이 크게 다르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임건의 통지 시 대응 방향과 관련,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국힘의힘도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맞을 올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시한까지 못박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에 대한 파면을 압박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이 장관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시사하자 ‘국정조사 판’을 깨자는 것이냐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8일로 날짜를 잡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조 합의를 끌어낸 원내 지도부는 고민스러운 모습이다.

당장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며 최대한 여야 간에 물밑 대화를 이어 가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나올 경우, 원내지도부로서도 ‘협치’ 원칙을 고수하는 데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가 나흘째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27일 오전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 중간에 운송을 멈추고 주차된 화물차들도 보인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다양한 실무 검토 중”

“현재로서는 날짜 특정 어렵다”

오늘 중대본서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은 27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먼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질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

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 표결 불참 의원 3명 징계 검토

국힘의힘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힘의힘 원내지도부는 표결에 불참한 당내 의원 3명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난 24일 본회의 불참에 대한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 원내 관계자가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표결은 ‘전원 참석’ 방침에 따라 상중이었던 의원도, 해외 출장 중이었던 의원도 모두 일정을 조정해 참석했다”면서 “그런데 3명은 사전에 보고도 없이 불참했고, 당일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한참을 받지 않다가 뒤늦게 회신했지만 합당한 사

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유서를 받아본 뒤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징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한 뒤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당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 총 3명 중 3명이 국힘의힘 소속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에 주한미우주군사령부 만든다

미국방부 北ICBM 위협에 서둘러
 美본토 밖 인태사령부 이어 두번째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가 창설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27일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USFK)에 우주군 구성군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한미우주군(USSF)은 연말까지 편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로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구성군사령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주한미해군, 주한미공군이 있듯이 주한미우주군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우주군은 일단 주한미군에만 소속되는 구조로 출범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우주군은 미 본토 밖의 두 번째 우주군 조직이 될 전망이다.

미군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등 전략문서에서 전역역 통합역제를 구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뿐만 아니라 전투사령부에 우주군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우주군은 신설 조직인 만큼 일단 소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창설된 인태우주군구성군사령부의 인원이 2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주한미우주군 규모는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망했다.

주한미군에 우주군 조직을 조기에 신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 2022년 11월 21일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장애인가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새 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 버스 천교 하차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